

코로나19 충격속 日 아베 내각 신뢰 급락

컨설팅업체 '켈스트 CNC' 조사 세계 주요국 중 하락 비율 최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인의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국제 컨설팅업체 '켈스트 CNC'가 지난 달 27일~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정부 대응에 관한 신뢰감이 어떻게 변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일본인 응답자의 58%가 '낮아졌다'

고 반응했다. 일본인 응답자 중 신뢰감이 높아졌다고 답한 이들은 6%에 그쳤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보다 52% 포인트나 높았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자국 정부 대응에 관한 신뢰가 상승한 응답자의 비율이 하락한 응답자보다 각각 13% 포인트, 3%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영국은 신뢰가 하락했다고 반응한 응답자 비율이 더 높기는 했다. 다만 그 격차는 각각 12% 포인트, 3% 포인트로

일본만큼 하락과 상승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한 일본인 응답자의 비율은 13%에 그쳤다. 반면 영국, 독일, 미국, 스웨덴은 각각 65%, 51%, 44%, 40%가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각국 거주자 1000명씩을 상대로 실시됐다. 아시아신문은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해 켈스트 CNC 측이 "일본 정부가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출구 전략 등

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켈스트 CNC 측은 일본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일본 유권자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일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나혼 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신조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13%만 아베 총리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푸틴의 입' 크렘린궁 대변인 코로나19로 입원

"대통령과 최근 접촉 없어"



정부 고위인사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에서 20여년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한 크렘린궁 대변인도 코로나19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 대변인을 맡은 드미트리 페스코프(52·사진)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이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직접 밝혔다. 함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페스코프의 아내 타티야나 나브키는 기자들에게 남편이 직장에서 감염됐다고 주장하고, 페스코프의 치료 경과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기 위해 병원 입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언제 마지막으로 페스코프와 대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대면 접촉한 것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자신으로 인해 푸틴 대통령이 감염됐을 가능

성을 부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전염병 감염을 우려해 모스크바 시내 크렘린궁으로 출근하지 않고 모스크바 서쪽 외곽의 노보오야료보 관저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회의도 원격 화상회의 형식으로 주재하고 있다. 러시아에선 열흘 연속 하루 1만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날 현재 누적 확진자가 23만2243명으로 늘었으며,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12만 1301명이 감염됐다. /연합뉴스

빛장 풀린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북한 등 127개국 복제약 허용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주목받는 렘데시비르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제약업체들에 복제약 제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12일(현지시간) 주빌런트라이프사이언스, 헤테로 랩스, 시플라 등 인도와 파키스탄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제조업체 5곳과 통상 실시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이 업체들은 전 세계 127개국에서 렘데시비르 복제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복제약 가격도 각자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 복제약이 공급되는 곳은 대체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이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코로나19로 한산한 거리서 졸업사진 미국 뉴올리언스의 트레인대학교 졸업생들이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한 길거리에서 졸업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미 상원, 대만 WHO 참여 지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대만인 79% "미국과 연대 지지" 18~19일 총회 미·중 격돌 전망

오는 18~19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대만의 WHO 참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 대만이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회원이 아니라 옵서버로 WHO 총회에 참가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대만은 친중국 성향

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WHO 옵서버 자격을 얻었지만, 반중 성향인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후 옵서버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법안은 "대만은 세계 보건 위기 때마다 크게 기여한 모범 국가이며, 세계 보건 협력에서 대만을 배제하는 것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초래된 위험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안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회복을 도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법안 통과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WHO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대만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코로나19 확산 때 '모범 대민국'으로 부상한 것을 계기로 WHO 재참여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편들기'로 일관한다는 비난을 받는 WHO도 중국의 눈치를 보며 이를 논의하길 꺼린다. 이에 따라 오는 18~19일 WHO 총회에서 대만의 WHO 참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만 국민도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연대를 훨씬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대만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9%에 달했지만, 중국과의 연대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모디 인도 총리 "경제 지원에 320조원 투입"

봉쇄 조치 연장도 예고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320조원을 경기 부양 등 경제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2일 밤 TV 연설을 통해 20조루피(한화 326조원)에 달하는 경제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세부 지원안은 재무부가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지원 패키지는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종사자, 산산층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는 코로나19 사태를 자립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국가 봉쇄령을 발동한 상태다. 이 기간에 산업 시설 가동, 이동 제한 등이 이뤄지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생겼다. 싱크탱크인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인도 노동자 1억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인 2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디 총리는 또 봉쇄 조치 연장도 예고했다. 그는 "이번 4차 봉쇄조치(lockdown 4.0)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새로운 물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전국적인 봉쇄령의 틀은 유지되 지역 상황에 따라 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최대 80%...잠복기는 5.8일"

아일랜드 더블린대학 연구팀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될 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소리 없는' 감염이 전체 감염의 33~80%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 더블린대학의 미리엄 케이스 교수 연구팀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세계에서 발표된 17편의 관련 연구문헌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

터넷이 12일 보도했다. 고열과 지속적인 기침 등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평균 6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잠복기는 평균 5.8일이었다. 그러나 대개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 빠른 경우는 3일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는 대부분 증상이 시작되기 3일 전부터 증상이 나타난 후 2일 사이였다.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증상 발현 0.67일 전이었다. /연합뉴스

고의사교!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TheK손해보험 | NH손해보험